



따뜻한 사람이 좋다면
우리 겨울 마음을 가질 일이다
꽃피는 얼굴이 좋다면
우리 겨울밤들을 가질 일이다
우리 희망은
긴 겨울 추위에 얼면서
얼어붙은 심장에 뜨거운 피가 들고
얼어붙은 뿌리에 푸른 불길기 살아나는 것
우리 겨울 마음을 가질 일이다
우리 겨울 희망을 품을 일이다.

실로암효명의집은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앞장서며 입소장애인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신장하여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입소 절차

- 1 입소 신청(주소지 읍면동 장애인복지과) ▶
- 2 관악구청 입소 의뢰 ▶
- 3 국민연금공단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서비스지원 종합점수 성인240점, 아동 190점 이상)
- 4 통보 ▶
- 5 입소계약 ▶
- 6 입소



가온다솜 | 37호

가온은 세상의 중심,
다솜은 사랑의 순우리말입니다

실로암호명의집은
거주인 중심의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보다 세심하게 고려하고 양질의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미션·비전

땅을 잃고 하늘을 찾은 사람들의 쉼터,
행복한 실로암효명의 집

1

거주인 중심의 거주시설 모델구축
장애유형별 거주인에게 편안한 생활 환경 조성
자립생활 중심의 전문적인 체계 구축

2

거주인 중심의 서비스 제공
장애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인권과 안전 최우선의 시설 운영

3

지역사회와 나눔실천
장애인 인식개선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 02 미션/비전
- 03 목차
- 04 실로암 컬럼
- 05 신규프로그램 | 웰다잉
- 06 효명의집 이모저모
- 08 2022 기획 | 양주시장애인체육대회
- 10 효명의집 가족을 소개합니다.
- 11 신입직원을 소개합니다.
- 12 지역사회네트워크 유관기관 방문 |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원
- 13 건강컬럼 | 겨울철 건강관리
- 14 외부지원 및 도움의 손길
- 15 나눔이 있어 행복한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

원장	법인명	법인대표	거주인정원
김무경	사회복지법인	김선태 목사	30명
설립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직원정원
2010년 7월 19일			33명

발행일 2022년 8월 통권 37호 법인대표 김선태
 발행인 김무경 편집인 박은애, 장혜승, 김순희 발행처 실로암효명의집 주소 (11424)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최장이길 656
 전화 031) 876-2900 팩스 031) 876-2990 홈페이지 <http://www.silwelnh.or.kr>





실로암 컬럼

천혜의 아름다운 섬 소록도입니다. 한 폭의 풍경화처럼 모든 게 아름다웠습니다. 섬 안에 몇 개의 마을이 있고 마을마다 집들이 있는데, 텃밭을 일구며 일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었습니다.

외부 차량이 들어오니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 허리를 펴는 분들에게 물어서 권사님이 계신 숙소를 찾았는가 싶었는데, 그만 어느 할아버지께 붙들리고 말았습니다.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면서 텔레비전이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좀 전에 끼운 안테나선이 위성방송 케이블이었습니다. 케이블 연결에는 이상이 없는데 전혀 수신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서비스센터에서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수신기를 만지는 내 손을 애타게 쳐다봤습니다. 할아버지의 오그라든 손을 보니 리모컨 누르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수신기의 환경을 설정해드리고 누르기 편하도록 방송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원을 껐다가 켜더니 방송이 수신되었습니다. 근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던 할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참 텔레비전과 실랑이하는 바람에 밖에 서 있는 일행들을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어디 계세요.”

“아! 할아버지 여기가 11호 건물 맞나요?”

그런데 아니랍니다. 텔레비전은 보고 싶는데 나오지는 않고, 케이블이 빠진 것 같은데 오그라든 손으로는 다시 끼울 수는 없고, 우리를 만나니까 그렇게 반가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묻는 말에 대충 대답하고 그것을 고쳐 달라고 나만 데리고 갔습니다. 다행히 앞 건물이 11호여서 그 건물을 한 바퀴 돌아서 차를 다시 주차하고 복도를 걸어가는데 그 할아버지가 메모지와 볼펜을 들고 나와 있었습니다. 고마워서 이름이라도 적어 두겠습니다. 그래서 ‘김무경 목사’ 이렇게 썼습니다. 그것을 받아들고 읽어보더니 앞 교회 건물을 가리키면서 ‘나도 이 앞에 교회 다녀요.’ 그리고는 ‘목사님!’ 하면서 와락 끌어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밀어내야 하나,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나, 어릴 때 울면서 떼를 쓰면 할머니가 늘 하던 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 ‘문디이’가 앞에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옹하고 있습니다. 귀도 떨어지고, 코도 문드러지고, 눈썹도 빠지고, 손가락도 일그러져 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싫어, 그냥 꼭 안아 드렸습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요즘은 한센병이 전염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봉사활동도 많이 가기도 하고, 유명 가수들이 방문하여 공연도 하고 그렇지만, 문득 드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 철 따라 찾아오는 곳에서 이렇게 따로 살지 말고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섬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맑은 공기를 아무리 많이 마시고 산다고 한들, 사람을 그리워하는 그리움은 어디서든 해결하기 어려울 겁니다. 권사님과 함께 사는 할머니들의 오그라든 손을 일일이 꼭 잡아 주었습니다. 많은 자원봉사자가 오지만 선뜻 손을 내밀지 못하는데, 내가 덩석덩석 손을 잡고 인사하는 것이 너무 좋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시각장애인들을 대할 때에는 먼저 말로 인사를 하고 손을 잡아 드려야 합니다. 그 권사님의 오그라든 손을 꼭 잡고, 병원 뒤편에 있는 중앙공원을 맘껏 걸었습니다. 공원 나들이가 처음이라고 하면서 관광객들이 드나드는 곳이라 그곳에 계신 분들은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목사님! 내가 왜 이런 천벌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장님 된 것도 억울한데, 이런 지가 벌써 40년 됐어요.”

“...”

그냥 아무 대답도 못 하고 묵묵히 걸었습니다. 뭐라고 위로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기도하면 문둥병(한센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하십니다. 저 절규를 들으시지요?”

우리 권사님, 제가 이곳에 온 후, 소록도 한 번 와 달라고, 그러면서 이곳에서 나와 함께 살고 싶다고 그렇게 부탁하셨는데, 그 소원을 들어드리지 못하고 2018년 6월 22일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악연(惡緣)이던 필연(必然)이던 이 세상을 사는 우린 질긴 인연(因緣)으로 삽니다. 수많은 이별 속에서 미워도 한세상을 사는 겁니다. 이곳에서 12년 동안 떠난 보낸 인연(因緣)이 이리도 많은 줄 몰랐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이승에서만큼은 서로의 연분(緣分)으로 사랑하며 사는 게 순리(順理)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들어가는 우리 어르신들, 마음을 다하여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2023년은 모든 게 정상이 되길 소원하면서 오늘도 하루도 끈질긴 인연(因緣) 붙들고 삽니다. 감사합니다.

66

웰다잉

잘 사는 것이 잘 죽는 것

담당자 권순현
(생활재활교사)

죽음이라는 소재는 누구에게나 무거운 이야기지만 연로 하시고 장애를 가진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그러한지 첫 회기부터 가라앉은 분위기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인 것은 알고 있지만 나에게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크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죽음 자체보다는 죽어가는 과정이 더 두렵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사회의 명사들의 죽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우리의 노력으로는 알 수 없는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남은 삶을 후회 없이 살면서 죽는 순간에 되돌아보며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나누었습니다. 회한과 후회가 없다면 죽음을 조금은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함께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백** 어르신은 자신이 남기고 가는 것이 많지 않아 삶에 미련이 없으나 멋진 영정사진 한 장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하였고, 이** 어르신은 젊은 시절 잘못된 게 너무 많아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이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에게 모두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쓸쓸한 표정으로 삶을 되돌아보며 말씀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전** 어르신은 자신은 죽어서 나무 아래 작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나무의 양분이 되어 흙으로 흡수되고 싶다는 바람을 말씀하시기도 하였는데, 수목장이 비용이 적지 않게 든다고 이야기하며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게 된다면 그마저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잘 죽는 것은, 남은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살아가다가 어떻게 잘 마무리하는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며 각자 여생에 무엇을 가꾸어 넣을 것인지를 생각하고, 함께 나누어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고 참여자들 대부분이 여생에 남은 가족을 위해 무엇을 더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어떻게 더 좋은 어른으로서 마지막 모습을 보여줄까 하는 생각을 주로 하시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나의 유언과 묘비명을 만들어보고, 남겨진 사람들에게 할 말을 편지로 써본 후 함께 읽고 감동하며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참여자들에게 다가올 죽음에 대한 위로가 되고 힘든 삶에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웰다잉 프로그램을 통해 모두 행복한 마지막을 위해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으로 웰다잉은 지속될 것입니다.



66

효명의집 이모저모

소규모나들이

하반기(7월~12월)

소규모 나들이를 양주관아지,
회암사지박물관, 조소앙 기념관,
울곡 박물관, 산정호수,
기산저수지 둘레길 등
다양한 곳으로 다녀왔습니다.



하계수련회

8월 24일 송추 숲속산장에서
하계수련회가 진행되었습니다.
2년 만에 진행되는 하계수련회라
더 뜻깊었고, 계곡물에 몸을 담그고,
신나는 물놀이를 뜨겁고 행복했던
여름을 마무리했습니다.





가을소풍

10월 14일 소요산, 10월 25일 광릉 수목원으로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아름답게 물든 단풍과 함께 시원한 공기, 물소리를 들으며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양주시 시각장애인 복지대회

10월 24일 제3회 양주시 시각장애인 복지대회가 3년 만에 개최되었습니다. 이영태 어르신들의 하모니카 축하 공연과 행운권 추첨, 노래자랑이 진행되었습니다.



특별행사

10월 15일 흰지팡이의 날,
11월 4일 점자의 날,
12월 21일 송년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드림이 예술단 공연

11월 24일 장애인식교육 일환으로 장애인 멤버로 구성된 드림이 예술단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함께 즐기고 교감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양주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 움직이면 행복해진다

지난 9월 20일 양주시 장애인 생활체육 보치아·술런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거주인 6명, 직원 4명이 참가하였으며 참가한 21팀 중 술런은 공동 3위, 보치아는 예선 통과라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대회에서 입상하는 것이 처음이라 모두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술런의 경우 실로암효명의집 A,B 팀이 출전하여 두 팀 모두 공동 3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우승 주역인 서문섭 어르신은 트로피를 생활실에 고이 모셔두고 매일 트로피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움직이면 행복해진다' 양주시 장애인 체육회의 슬로건에 맞게 운동하며 행복해지는 중입니다.





• 개회식 •



• 슨런 예사전 •



• 슨런 4강전 •



• 보치야 예사전 •



• 시상식(실로암효명의집 A,B팀 공동 3위) •



효명의집 가족을 소개합니다.



존재감 뽐뽐

여경자

직원에게 가장 먼저 “안녕하세요”라고 환한 미소로 인사를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몸이 불편하지만 항상 모든 일에 열심히 하는 모습을 응원합니다. 큰 소리로 밝게 웃으시는 어르신 진정한 존재감 뽐뽐입니다.

해바라기

현금숙

항상 그 자리에서 밝은 미소를 보냅니다. 직원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에는 오직 직원만을 바라보는 일편단심! 당신을 사랑합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서문섭

직원들이 힘들거나 지쳐 있을 때 무심하게 전하는 비타 500, 사이다, 각종 과자는 직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말투는 통명하지만 그 안에 따뜻한 마음은 비타 500으로 전해지기 충분합니다. 앞으로도 매일 매일이 행복한 크리스마스겠지요.

커피 프린스

우명학

우명학씨의 하루는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합니다. 커피에 쓴맛 단맛을 맛보면서 인생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인들과 장기 한 판! 커피 내기를 한 번 해볼까? 승리는 나의 것! 저와 함께 커피 한잔하실래요?





신입직원을 소개합니다.



생활재활교사 **김재훈**

실로암효명의집에 입사하게 되어 너무나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거주인과 직원들께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기도하며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작업치료사 **이용석**

여기를 가나 처음은 항상 두렵고 어렵습니다. 이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너무 힘들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무색할 만큼 거주인들과 직원의 따뜻한 마음은 저를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기도 전에 받은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작업치료사로서 거주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조리원 **진순복**

입사 한지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과 직원들과의 관계가 좋아서 그런지 시간이 빨리 지나가네요. 그만큼 서로 챙겨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실로암효명의 집의 훌륭한 맛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생원 **박용순**

집에서 가까운 직장에서 일하게 된 행운의 주인공 박용순입니다. 어르신들과 직원 모두 반갑게 맞이해주셔서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누군가의 부모, 이모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를 편하게 대해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조리원 **한성미**

안녕하세요. 조리원 한성미입니다. 조신하지만 때로는 과감하게 영리하지만 때로는 무뎠하게 순수하지만 때로는 정열적으로 일하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실로암 효명의집 식구가 되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지역사회네트워크 유관기관 방문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안녕하세요 실로암효명의집에서 지역사회연계를 담당하고 있는 김은철 사회복지사 인사드립니다. 우리 효명의집은 양주시 광적면 쇠장이길 656 소재하여 주변이 산림지역으로 편의시설을 이용하려면 최소한 10분 이상 차로 나가야 하는 곳에 있습니다.

2010년 7월 19일 30인 중증장애인 소규모시설로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시’에서 개원하여 크고 작은 지역사회연계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양주시회천노인복지관, 양주시희망노인복지관(양주동부권노인복지관), 양주시치매안심센터, 양주시보건소, 양주시시각장애인연합회, 양주시사회복지협의회, 양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양주시사회복지사협회, 요셉의집, 양주시장애인체육회, 양주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등 양주의 사회복지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다양한 기관과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우리 효명의집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거주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려 합니다. 많은 도움과 연계를 요청하며 2022년 11월 방문했던 양주장애인종합복지관을 소개합니다. 따뜻하게 환대해주신 김정희 관장님 이영은 사무국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많은 사업이 연계되기를 고대합니다.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19년 6월에 개관하여 양

주시 시민들과 장애인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장으로서 장애인식개선사업 및 사회·의료·교육·직업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장애인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고, 경제적·심리정서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지원사업, 언어재활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각 영역별 전문가들이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향상지원사업, 지역사회 장애인과 가족,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취미 여가·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을 돕는 사회참여지원사업, 중증 장애인을 낮동안 보호·케어하는 주간보호시설, 복지관을 홍보하고 자원 개발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지역복지지원사업, 복지관의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운영지원사업, 4차산업혁명에 맞춘 특화사업으로 반려로봇 IT 사업과, IoT 사업, VR체험관 운영 등 첨단 복지융합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역사회와 함께 하며 장애인과 가족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기관으로서 그 소임을 충실히 하고, 나아가 4차 산업 선도 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겨울철 건강관리

효명의집 건강한 피부로 겨울 보내기~

건조하고 추운 겨울이 다시 돌아오며 각종 노인성 피부 질환으로 인해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거주인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노인 피부 건조증이 발생하는 이유와 피부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노화가 되면 피부구조의 변화가 오면서 피부 두께는 얇아지고 외분비선이 감소합니다. 이 같은 피부 변화는 살갗을 건조하게 만듭니다. 특히 겨울은 공기 중 습도가 낮아 피부에 있는 습기를 빼앗아 갑니다. 피부는 더욱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 발생합니다. 이는 자극성 접촉성 피부염, 건성 습진, 소양성 양진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만약 당뇨나 혈관질환으로 인해 말초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노인 환자라면 2차 감염에 의한 봉와직염이 유발될 수도 있다’고 피부과 전문의들은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피부 건조증은 노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피부질환 중에서도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이며 유발인자로는 내인성, 유전적 및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인성 요인은 주로 피부의 자연적 노화에 따른 변화들이고, 환경적 요인으로는 과도한 에어컨 사용이나 지나친 난방, 겨울철의 건조하고 서늘한 대기, 강한 세제나 비누 사용, 너무 뜨거운 물에서의 목욕, 피부용 파우더의 과도한 사용 등이 노인 피부 건조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효명의집 어르신들은 매년 겨울철 피부 건조로 인한 가려움증을 호소하며 심한 경우 상처 등 피부질환 및 2차 감염의 우려가 있어 겨울철 건강한 피부 나기 방법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 목욕 습관이 중요하다. 너무 뜨거운 물은 좋지 않습니다. 체온 정도의 미지근한 온도가 적합합니다. 비누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으며, 꼭 필요한 곳에는 세정력이 약한 유아용 비누를 사용합니다. 목욕 기름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때수건으로 피부를 미는 행위는 절대로 피해야 하며 겨울철 온천욕도 오래 즐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피부 수분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수분 보충을 충분히 해준다. 목욕 후에는 피부에 물기가 약간 있는 상태에서 바로 보습제를 발라줍니다. 각질층의 수분이 소실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습제는 얼굴뿐 아니라 손, 팔, 다리, 몸통 등 온몸에 발라주며, 피부의 지질 성분 중 하나인 세라마이드를 함유한 보습제는 피부에 부족한 지질을 빠른 시간 안에 보충할 수 있습니다. 각질이 과하게 있는 경우 각질 완화제를 같이 사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셋째, 실내온도와 습도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한다. 실내온도 변화폭을 크지 않게 합니다. 습도는 적절한 수준(50%이상)을 유지하며 이를 위해 가습기를 별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난방은 실내 공기의 습도를 감소시키므로 가능하면 너무 덥지 않게 조절하며, 여름철의 경우도 과도한 에어컨 사용은 자제해야 합니다.

넷째, 건조한 피부에는 자극을 최소화한다. 가렵다고 긁으면 피부에 자극을 더 주어 습진이 생기거나 세균감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려움증이 심하다면 경구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합니다. 또 건조해진 피부에 거친 옷이나 인조섬유, 모직물 등이 직접 닿으면 자극이 되기 때문에 추가 가려움증을 일으키게 되므로 가급적 면으로 된 내의를 입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 거주인들이 피부관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보았습니다. 실로암효명의집 거주인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지원 및 도움의 손길

- 09 2022년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국 사회복지기관 개보수 지원사업 선정(신관 리모델링/3,000만원)
- 11 2022년 E1 희망충전캠페인 장애인 거주시설 상품권 지원사업 선정(프로스팩스 상품권/500만원)



후원 안내 ☎ 031-876-2900

후원하신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에 의해 연말정산 시 세금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후원	치료, 교육 등의 재할서비스 지원과 기관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사용 계좌번호 : 793901-00-052667 (국민은행) 실로암효명의집
결연후원	장애인과 1:1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방법으로, 후원금 전액은 결연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을 위해 사용
물품후원	금전적 후원 외 생활용품, 의류, 가구, 운동기구 등
해피빈	http://happylog.naver.com/silwelnh.do

후원금 납입방법

CMS후원

(출금이체서비스)

- CMS는 후원자 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되어 복지관의 지정 계좌로 입금되는 후원 방식입니다.
- 효명의집에 비치된 후원신청서나 홈페이지 후원 신청에서 CMS 자동이체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매달 은행에 가시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 통장과 도장, 신분증을 가지고 거래 은행에 가서 한 번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나눔이 있어 행복한 세상, 더불어 사는 이야기

8월~12월 후원금 결산보고

(단위: 원)

세입		세출	
이월금	-	사무비	11,130,315
지정후원금	550,000	재산조성비	19,280,670
비지정후원금	21,757,174	사업비	5,664,880
합계	22,307,174	합계	36,075,865

후원자 현황(8월~12월) 관심과 사랑으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자(2022년 8월~12월)

단체

(사)대한안마사협회, CJ프레시웨이(주), 광적남원추어탕, 국민은행 양주테크노지점, 무지개호스피스, 삼밭골편의점, 실로암안과병원, 실로암효명의집, 서울떡집, 서울특별시시각장애인연합회 종로지회, 태원엘리베이터, 해피빈

개인

국현호, 권기덕(경수회), 권수진, 권순현, 김경민, 김말년, 김무경, 김미경, 김병규, 김선태, 김순희, 김영서, 김은철, 김은희, 김인자, 김재훈, 김정현, 김태웅, 김태웅, 김태훈, 김한림, 김호직, 남지현, 노형지, 도윤희, 무 명, 박대삼, 박성일, 박소진, 박수정, 박옥희, 박용순, 박은애, 박인수, 변현미, 서희경, 송경원, 신혜경, 안미숙, 양민정, 엄현희, 염가연, 오창래, 유홍진, 윤경진, 윤찬호, 이강일, 이광열, 이숙경, 이순희, 이승욱, 이영숙, 이영순, 이영태, 이용석, 이재영, 이지양, 이지영, 이진실, 이진용, 이혜지, 임영희, 장혜승, 전승미, 정구연, 정진아, 조미경, 조성일, 조성훈, 진순복, 최동익, 최영아, 최영훈, 최준호, 최지현, 한성미, 한재근, 한형석, 함요한, 함은창, 함지훈, 함현식, 현재순, 현혜연, 황선교, 황진향

자원봉사 안내

자원봉사자(Volunteer) - 세상을 움직이는 1% 힘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능과 시간의 자발적 나눔,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신청 대상

- 중, 고등학생, 대학생, 주부, 직장인이 대인이나 단체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노력봉사 : 시설, 환경관리를 위한 보조(생활실청소, 안내보행, 말벗 서비스, 식당보조활동 등)
- 문화행사봉사 : 거주인을 위한 문화행사 보조 (건강산책, 야외나들이, 현장체험등)
- 전문봉사 : 전문기술 소유자의 능력을 활용한 봉사 (이미용봉사, 운전봉사, 사진봉사 등)
- 교육지원 : 거주인을 위한 교육훈련 보조 (음악활동, 미술활동, 원예활동, 웃음치료 등)

신청 방법

- 1 모집분야확인
- 2 내방 및 전화상담
- 3 봉사영역확인
- 4 봉사일정협의
- 5 신청서 작성 및 교육
- 6 활동진행 및 평가
- 7 인증서 발급